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효과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도, 우울감 등 감소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접촉횟수가 늘수록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2016~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병원 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사례관리팀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2~3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자살 재시도자, 자살 유족 등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참여기관이 2016년 27개에서 2017년 42개, 2018년 52개 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참여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수도 2016년 8372명, 2017년 1만2268명, 2018년 1만7553명으로 증가했다.

2016~2018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총 3만8193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4.9%였다. 향후 자살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7.1%는 1개월 이내 자살계획이 있다고 밝혀 자살 재시도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과적 증상이 3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인관계 21.0%, 말다툼 등 12.5%, 경제적 문제 9.6%, 신체적 질병 6.7% 순이었다. 자살시도자의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였고,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37.3%)이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34.8%)보다 높았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자살시도자는 10대 이하와 20대의 비율이 늘었으며, 특히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의학적 치명도에 있어서는 경미한 신체적 손상의 비율이 2016년 13.2%에서 2018년 17.9%로 증가했다.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1만2045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가 진행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및 계획, 알코올 사용문제,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이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를 적정서비스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비 지원은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치료비 수혜자 546명 중 94.5%가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비수혜자 중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사람(49.5%)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후관리서비스가 최종 4회 접촉까지 지속된 경우도 89.1%로 의료비 비수혜자 68.3%에 비해 높았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병원을 올해 63개로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우 센터장은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통한 치유를 제공하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적정사용 크게 개선

의료기관 간 격차 커 … 중소병원 지원 강화해야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10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8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를 2007년부터 평가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839개 기관을 대상으로 19개 수술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2007년 최초 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다. 종별로는 병원급이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올라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차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80.0점, 종합병원 56.0점, 병원 40.0점으로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간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이번 평가에는 상급종합병원 98.8점, 종합병원 84.2점, 병원 75.7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기관 간 종합점수 편차가 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6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지표별 평가결과는 1차 대비 모두 향상됐다.

수술 시 체내 항생제 농도를 유지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89.6%로 2007년 대비 21.2%p 증가했다.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후 1일(심장 2일)까지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2.9일로 2007년 대비 4.6일 줄어 61.3% 향상됐다.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병용투여 등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도 감소했다.

1등급 기관 비율은 34.4%로 2008년 대비 19.9%p 증가하고, 4등급 이하는 3.8%로 2008년 대비 26.1%p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차 평가 이후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3%, 23.6%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김남희 심평원 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첫 평가 이후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도 감소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 400여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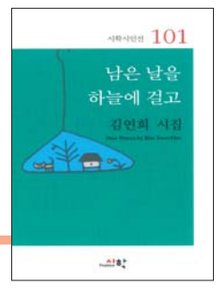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했다.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김연희 간호사 네 번째 시집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



"평생 흙 물어 나르신 어머니는 제비입니다 / 한 그릇의 밥도 한 뼘의 집도 흙이지요 / 꼬부랑 골목 끄트머리 초가집 추녀 끝에 / 사시사철 흙의 이름을 걸고 / 우리들의 어머니 안부를 전합니다" ('흙의 무병장수' 중)

김연희 간호사(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장)가 시집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를 발간했다. 네 번째 내놓은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1부 남은 날을 하늘에 걸고, 2부 탯줄 상소, 3부 떡시루 비브라토, 4부 물레방아 등으로 구성됐다. 각 시들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김연희 간호사는 "창작 시집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생활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인류와 고향, 자연에 관계되는 문학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긍정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승원 문학평론가는 "무심히 마주치는 자연물의 소중함이나 반려동물을 통해 보게 되는 인간 행위에 대한 깨달음, 근친의 죽음이나 날씨 등에 대한 일상의 감각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를 향한 시선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집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연희 간호사는 2001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했다. '진료소의 나날' '꽃메아리' '시간의 숲' 시집을 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경남문협, 경남시인협회, 마산문협, 붓꽃문학회, 가톨릭문인회 회원이다. 간호사신문이 주최하는 '간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서출판 시와시학/131쪽/9,000원〉

최유주 기자 yjchoi@

장애인 부부 위한 임신·출산 지침서 발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인 '40주의 우주'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영문 서적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와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도 번역해 발간했다.

40주의 우주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부부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제작됐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국립재활원이 함께 참여했다.

40주 동안에 필요한 의학정보와 함께 장애유형별 당사자 심층면담으로 확인한 장애인 부부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번역본인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 가이드는 임신·출산을 하려는 장애여성을 대하는 의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장애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가난·편견·차별 속에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며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공동체를 변화시킨 세계 각국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40주의 우주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국립재활원(www.nr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2019년 8월 교육 개최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8월 보수교육(8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일 시	– 호흡기계 환자간호	2019년 8월 20일(화)
	–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재활	2019년 8월 21일(수)
	– 노인환자의 응급간호	2019년 8월 22일(목)
	–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이해	2019년 8월 23일(금)
	– 만성질환 관리 및 간호	2019년 8월 30일(금)
장 소	KNA연수원	
인 원	120명(선착순 마감)	
신 청 기 간	2019년 7월 15일(월)~8월 15일(목)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신청 및 결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8월 1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6년 면허 취득자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2019. 1. 1. ~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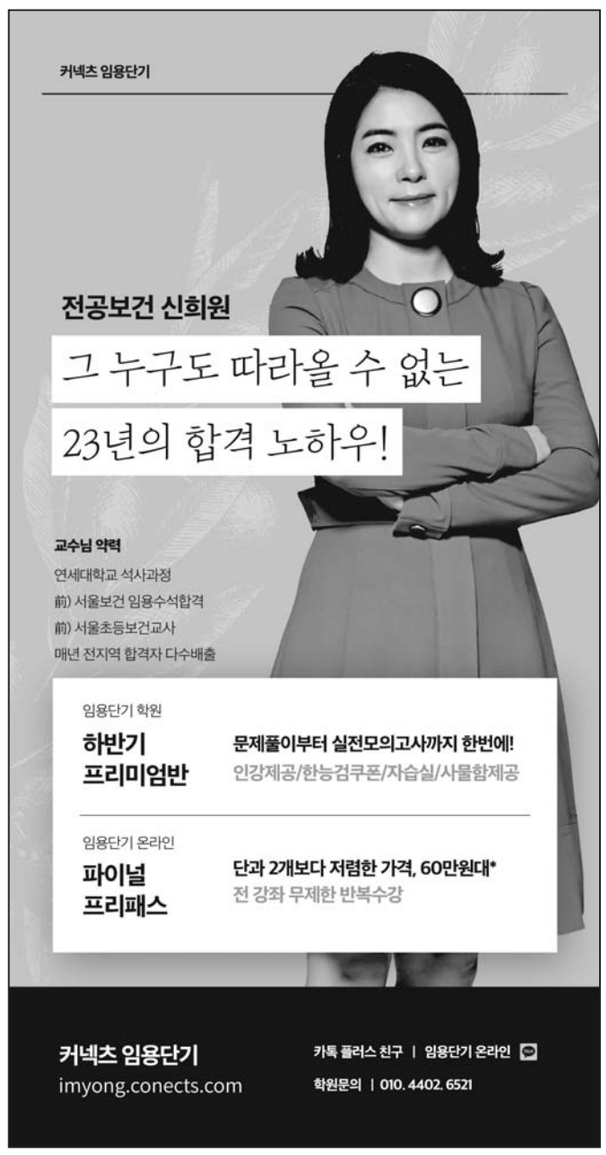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8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구분	해당사유	증빙서류	비고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성적증명서	* 해당연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는 2018.1.1.부터 면제자로 적용함
	- 해당연도 출산자 *	임신확인서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휴직자	휴직증명서	
	- 퇴직 및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	
	- 일반·행정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 노조전임자	발령확인서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 군복무자는 2017년까지 유예에 해당함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진단서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면허신고센터 ☎ 1588-6282